

조기 위암 환자에서 최소 림프절 절제 범위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

황호경, 이재훈, 형우진, 윤동섭, 최승호, 노성훈, 김충배, 지훈상, 민진식

(배경 및 목적) 위암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는 조기위암일 때 대략 2~20%, 진행된 위암일 때 50% 정도 이다. 그리고 근래에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수술범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. 특히 조기 위암인 경우 림프절 절제의 최소범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. 감시림프절은 암의 병변 부위에서 암세포의 전이가 있을 때 처음 도달하는 림프절이라고 생각되며 고립림프절은 암 전이가 발견된 유일한 림프절이므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조기위암의 감시림프절의 전이상태를 분석하고 또 위암의 병기에 관계없이 고립 림프절에만 전이가 있었던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위암에서 최소 림프절 절제 범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연세대학교 영동 세브란스 병원 외과에서 2000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위절제술 및 D2 림프절 절제술을 받은 조기위암 환자 중 80명의 환자에서 감시림프절 검사를 시행하였다. 감시림프절 검사는 개복 후 병변을 찾아 25 mg의 Indocyaningreen (ICG) 염색시약을 5 ml의 생리식염수에 녹여 종양주위의 장막하에 주입하고 5분 후에 염색된 림프절을 찾아 표시하였다. 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중 고립림프절에서 암의 전이가 발견된 141명의 환자의 임상 자료를 분석하였다.

(결과) 감시림프절 검사를 시행한 80명의 환자 중 71예(88.8%)의 환자에서 감시림프절이 발견되었고 그 중 62예(87.3%)가 위주위의 제1군 림프절에 위치하고 있었고 9예(12.7%)가 제2군 림프절에 위치하였다. 고립림프절에서 전이가 있었던 141예의 전이 위치를 분석하였는데 125예(88.7%)에서 제1군 림프절에 위치하고 있었고 16예(11.3%)에서 제2군 림프절에 위치하고 있었다.

(결론) 이상의 결과에서 감시림프절과 고립림프절 모두 제2군 림프절에서 약 12% 가량 발견되었으므로 조기위암에서도 제1 림프절이군 절제만으로는 암의 조기 전이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최소한 D2 이상의 림프절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